광주시, 유망 中企 1110개 육성

2014년까지 인력양성 등 2조4천억 투입

姜 시장 단장 '빛고을 中企 지원단' 구성

광주시가 오는 2014년까지 유망 중소·중견기업 1110개를 육성키로 하고 강운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빛고을 중소기업 지원단'을 구성해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우선 민선 5기에 ▲자립형 중소기업 1000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100개 ▲히든챔피언 중견기업 10개를 선정, 육성키로 했다.

자립형 중소기업은 매출 및 종업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은 기술력 및 사업화능력 우수 기업, 히든 챔피언은 수출 유망 기업을 의미하며, 광주시는 5대 주력산업인 자동차·가전·광산업과 금형업체 등을 대상으로 종업원 수, 매출액, 연구소 보유, 특허 보유 수 등에 대한 기업체 현황을 파악해 연차별로 육성 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육성 대상 기업은 자금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창업·교류지원으로 나눠 경영안정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수출진흥자금, 보증지원 등의 자금을 오는 2014년까지 5년간 모두 2조4185억원을 지원받는다.

기술지원과 인력양성은 광주지역에 소재한 한국광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센터 등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유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전자모듈진흥사업, 광주R&D특구사업, 사이언스파크조성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우수기술과 제품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제공 받는다.

또 마케팅 및 창업교류 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역산업진흥사업, 광주R&D특구사업, 무역사절단 파견, 국내외 전시박람회 지원, 웹 마케팅 지원, 디자인 컨설팅, 경영 컨설팅, 창업 보육센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례적으로 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는 빛고을 중소기업 지원단에는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광주은행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 지역본부장, 광주테크노파크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본부장, 광산업대표자협의회장, 광주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장,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산업 인재양성센터장 등 경제 관련 지역 기관장 36명이 참여하게 된다.

지원단은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협의·조정과 수요자인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논의한다. 기업지원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예정으로 첫 회의는 오는 2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다.

시 관계자는 "빛고을 중소기업지원단에 기업 지원의 수요자인 중소기업 대표와 유관기관의 대표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업현장의 불편·애로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이 논의·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름다운 가게 행사'

광주시 서구 상무힐스테이트 주민들이 지난 7일 단지 내 광장에서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의류 등 생필품과 수박 등을 내놓고 '아름다운 가게 행사'를 열고 있다. 현대건설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광주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기업 '뛰는' 매출 '걷는' 고용

삼성전자 등 고용증가율, 외형 성장에 훨씬 못미쳐

주요 제조업종 기업들의 고용증가율이 외형 성장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방식의 자동화와 글로벌화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고용창출과 관련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8일 주요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출은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인 반면, 직원 수는 한자릿수 증가에 머물거나 감소한 사례가 많았다.

삼성전자는 2009년 글로벌 기준 매출이 138조9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04년(57조600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직원 수는 2004년 6만1899명에서 2009년엔 8만5085명으로 37.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대자동차도 2004년(27조4000억원) 대비 2009년 매출(31조8000억원)이 16.0% 늘었지만, 직원 규모는 5.2% 증가했고, 기아자동차도 같은 기간 매출이 21.1% 올랐음에도 직원 수는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LG전자는 5년 동안 매출이 21.2% 증가하는 동안 직원 수를 14.4% 늘렸고,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제철은 50%대의 매출 성장 속에서 직원 수는 40%가량 불어났다.

외형이 크게 성장했지만, 직원 수가 줄어든 기업도 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매출이 21조1000억원으로 2006년(12조5000억원)보다 68% 늘었지만, 직원 수는 2만5398명에서 400여명(1.6%) 줄었고, 포스코도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의 매출 증가율이 36.1%였지만, 직원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해외법인 증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 및 사업 영역이 세계화하면서 외형은 크게 성장했지만 해외에서 현지인 채용을 늘려 국내에선 고용이 기대했던 만큼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많은 현지법인을 둔 삼성전자가 그런 사례에 속한다.

/연합뉴스

정부 '이란 독자제재' 불똥튈라

국내 기업들 '노심초사'

대(對)이란 관계 악화 조짐을 우려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이란에 대한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란이 자국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에 대해서 교역중단 등 보복조치를 공언한 가운데 이미 국내 일부 업종에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 이란 사업을 하는 국내 무역업체들은 대부분 이란계 은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입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이란에서의 신규 수주가 사실상 중단됐다. 현대건설은 올 초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란 테헤란 지사장을 알마티 지사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GS건설은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작년 10월 이란에서 수주한 1조4000억원 규모의 가스탈황시설 공사의 계약이 지난달 파기된 바 있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기업들도 금융동결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들어 국내 은행들이 이란과의 외국환 거래를 중단하면서 현재 묶여 있는 결제대금만 해도 최고 10억달러에 달한다.

/연합뉴스

작년 농림업 생산액 43조

지난해 농림업 생산액이 4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2009년 농림업 생산액이 42조9951억원으로 집계돼 2008년(39조6626억원)에 비해 8.4% 증가했다"면서 "농업이 41조3643억원, 임업은 1조6309억원으로 2008년보다 각각 7.5%, 36.7% 늘었다"고 밝혔다.

2009년 농업 생산액을 분야별로 보면 농작물이 24조8802억원(57.9%), 식량작물 9조8635억원(22.9%), 채소 7조5541억원(17.6%), 과실 3조5106억원(8.2%), 축산업 16조4840억원(38.3%) 등으로 나타났다. 임업부문 생산액은 1조6309억원으로 2008년 생산액은 1조1928억원이었다.

/연합뉴스

전기차 가파른길 못 올라간다?

지리산 1100m고지도 올랐다

트럭·스쿠터로 천은사~성삼재 등정 시연

전기차가 험하고 가파르기로 유명한 지리산 천은사에서 1100m 고지인 성삼재에 이르는 약 13㎞ 구간을 올랐다.〈사진〉

전기차 개조기술 개발업체인 레오모터스가 지난 5일 전기차는 가파르고 거리가 긴 경사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자사 기술력을 입증하겠다며 배기량 796cc짜리 라보 트럭을 개조한 전기자동차와 전기스쿠터 힐리스Ⅲ로 지리산 등정 시연에 나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지만 이들 차량은 최고 경사도 20도 급커브 지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가볍게 평균 시속 40㎞로 올라갔다.

라보 트럭에는 300kg의 짐까지 실린 상태였다.

이들 전기차들이 언덕길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은 바로 '파워모드'다.

언덕길에서는 모터의 회전속도인 일정량의 RPM이 필요한 데, 기존 전기차는 모터를 가속하면 과부하로 멈춰버리지만 레오모터스가 개발한 '파워모드'를 적용하면 필요한 양만큼의 전기를 주기적으로 공급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과부하도 막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에어컨 전용 배터리가 별도로 있어 여름에 에어컨을 켜도 운행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유지비 역시 기존 디젤 차량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게 레오모터스 측의 설명이다.

레오모터스 관계자는 "근거리 운행 차량으로 이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기술개발이 완료돼 전기차 개조법만 통과되면 곧장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401회)

당첨번호						보너스 번호
6	12	18	31	38	43	9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168,214,792	9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0,424,904	29
3	5개 숫자 일치	1,293,227	1,355
4	4개 숫자 일치	50,000	59,599
5	3개 숫자 일치	5,000	949,491

팝콘복권

(제207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3조	724828
2	1억	1조	532527
		1조	562147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10478
5	50만	각조	3511
6	2천	각조	52
		각조	71
		각조	57
7	1천	각조	5
		각조	6
		각조	4

▲ 코스피지수 1,783.83 (+24.50)

▼ 코스닥지수 478.47 (-2.98)

▲ 금리 (국고채 3년) 3.89% (+0.09)

▼ 원·달러 환율 1,161.80원 (-20.90)

※수치는 6일 기준 1주전과 비교